



PROCLAMATION

선언문

“범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 및 편협적 사고를 규탄하며”

이에, COVID-19의 창궐로 전례없는 파괴적 영향이 국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기승을 부리고, 범아시아계 커뮤니티를 타겟으로 하는 혐오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페더럴웨이는 COVID-19 대감염사태가 유독 유색인종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통감하며, COVID-19대유행에 철저히 대처해나아감은 물론, 우리들의 훌륭한 다양성을 품고 기리며, 주민들의 안전과 안정 그리고 평등한 대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양인들은 표적이 되고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현실에 안주하고 침묵하는 형이라 간주되어옴으로써 이렇듯 비난 받아 마땅한 지속적인 증오의 표출들이 흔히 눈에 띄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공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페더럴웨이는 명예롭게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인시장이 선출되었고, 미국 최초의 한인경찰국장이 임명되었으며, 워싱턴주 최초 베트남인 시의원을 비롯한 세명의 시의원이 배출된 범아시아계 커뮤니티를 매우 소중히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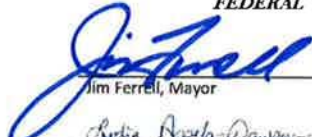
이에, 페더럴웨이는 범아시아계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 구성원의 복지와 안전을 지향하는 시차원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이며, 우리들의 친구와 이웃에게 우리가 그들의 안전을 절대시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에, 페더럴웨이는 현재 처한 대감염병 유행과 그 이후까지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이러한 유해와 규탄 받아야할 혐오를 예의주시하는데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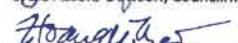
그리하여, 여기 서명하는 페더럴웨이 시장과 시의원 모두는 혐오와 인종차별이 없는 다양하고 융화된 커뮤니티를 지켜나감으로써 이곳에서 살아가고 이곳에서 일하며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페더럴웨이시야말로 인종, 출신국가, 성별, 장애, 종교에 근거한 편협한 사고, 외국인 공포증, 증오 및 폭력에 엄중히 대처한다는걸 확신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민들이 범아시아계 이웃들과 연대적으로 결속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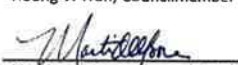
서명일 2021년 4월 6일

FEDERAL WAY MAYOR AND CITY COUNCIL


 Jim Ferrell, Mayor


 Lydia Assefa-Dawson, Councilmember


 Hoang V. Tran, Councilmember


 Martin A. Moore, Councilmember


 Susan Honda, Council President


 Gregory Baruso, Councilmember


 Leandra Craft, Councilmember


 Linda Kochmar, Councilmember